

광주 민-군공항 통합 이전·기본소득 지급 '쟁점'

전남도 국감

양부남 "민주당 토론회·특위 구성"
김지사 "강시장, 무안 발언 사과를"
기본소득 공약 놓고 여야 이견
한전공대 예산 지원 "과하다" 지적

광주·전남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 문제가 전남도 국정감사에서 화두로 떠올랐다. 또 전도민 100만원 기본소득 지급과 한전공대 재정 지원 문제 등이 쟁점이 됐다.

21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전남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인 양부남(광주 서구을) 의원은 "광주시장의 (무안군에 대한) 발언과 연말 시한, 소위 '플랜 B'에 대한 사과 및 취소가 이뤄진다면 3자 회동에 나설 의지가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양심 불량"이라는 표현은 무안군민들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밖에 없는 발언인 만큼 사과 표명이 필요하다"며 "오는 12월까지 예비 후보지를 결정하겠다는 광주시의 의견은 대안도 없는 무리한 주장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 광주시장의 사과가 있다면 3자 회동을 추진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군공항 이전을 위해 전남도는 설명회 및 홍보까지 다방면으로 노력한 만큼, 이에 대해 전남도에 책임을 묻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양부남(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에게 광주공항 이전과 관련된 질의를 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양 의원은 또 "전남도가 공항 이전 문제의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인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고, 이에 김 지사는 "중요한 건 광주시와 무안군의 입장이지만 전남도 역시 중재자이자 당사자 입장에서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 의원이 "3가지 사안이 충족되면 광주시당이 앞장서 무안 미래발전 토론회를 마련하고, 당에는 광주 민간·군공항 특위 구성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김 지사는 "(민주당) 전남도당도 함께 해야 전남도가 보다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조건부 수용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기본

소득에 대한 질의가 가장 많았다. 민주당 채현일(서울 영등포갑) 의원은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라며 "최근 재보궐선거에서 기본소득 100만원 공약이 있었다. 전남도가 전도민 100만원 기본소득을 실현하게 될 경우 선도적인 혁신행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감사반장인 신정훈(나주·화순) 의원도 "전남의 인구 소멸지수는 전국 1위이나 정작 주민 1인당 세출 규모는 영광 1500만원, 곡성 2000만원 등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인 600만원보다 3~4배

에 이른다"며 "재정 구조조정을 통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지사는 "여러 가지 재원을 확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하겠다"며 "전도민 100만원 기본소득 지급은 검토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 의원은 "이번 영광·곡성 재보궐선거서 군민 1인당 연간 100만원씩의 기본소득을 지원한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영광만 놓고 봐도 관련 금액은 총 51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7%에 달하는 많은 금액이 필요한 만큼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종양(창원 의창구) 의원도 "열악한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현금성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복지 포퓰리즘이다. 현금 살포식의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일자리 문제와 연동되는 인공지능(AI) 시대 도래로 기본소득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지역자원 시설세와 지방소멸 대응기금, 햇빛·바람 연금 등을 활용한 재원대책을 우선 마련한 후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한전공대와 관련해 전남도와 나주시가 과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 의원은 "현재 한전공대에 전남도와 나주시가 각각 100억원씩 10년 간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한다면 과도한 지원"이라고 지적했다. 200조를 넘긴 한전의 적자액도 꼬집었다. 이에 김 지사는 "한전공대 지원은 미래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대한 일종의 투자로 이해해야 한다"며 "한전의 적자액은 낮은 전기요금 때문에 생긴 것으로, 한전공대와는 별개의 문제다. 전남도가 매년 지원하고 있는 100억원의 금액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오지현 기자 jhyun.oh@jnilbo.com

KIA, 한국시리즈 우승 도전에 지역경제도 '들쭉'

유통·숙박·외식업계 '특수' 기대
주점, 주류 할인·치킨서비스 제공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12번째 한국시리즈 우승 도전에 지역경제도 들쭉이고 있다. 유통업계를 비롯 숙박·외식업계는

'한국시리즈 특수'를 기대하며 마케팅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는 등 KIA의 7년만의 한국시리즈 진출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규시즌을 1위로 마치며 한국시리즈에 직행한 KIA는

삼성라이온즈와 올해 챔피언 자리를 두고 겨룬다. 영호남 전통 인기구단 간 맞대결답게 예매 시작부터 대기자만 수십만명에 달하는 등 지역민은 물론 전 국민의 관심이 쏠렸다. 이에 유통·외식업계 등 '한국시리즈 특

수'를 기대하는 각 업계들도 야구팬 모시기에 한창이다. 지역 유통업계는 한국시리즈 기간 텔리·주류 등 먹거리 매출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프로야구 정규시즌 당시 지역 유통업계의 매출이 급등한 바 있다. 광주지역 이마트에 따르면 정규시즌 막바지인 지난 9월 한달 간 지역 내 이마트

3개점의 델리류 누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4% 증가했다. KIA가 선전을 이어가며 올해 야구의 인기가 역대급에 달한 덕이다. 특히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와 광주종합버스터미널(유·스퀘어) 인근에 위치한 이마트 광주점의 델리 매출은 전년보다 15.4%나 뛰었다. **▶ 3면에 계속**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제30회 녹색환경대상 공모

환경지킴이를 찾습니다

- 공모부문** 생활속 환경실천 일선 생활현장에서 환경보전 및 기후위기 개선에 노력한 개인·단체
- 자연 환경보전** 바다 및 강(도랑 포함), 먹는 물, 미세먼지, 대기, 폐기물 등 관련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개인·단체
- 환경교육** 환경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실천하도록 의식 제고에 기여한 개인·단체
- 서한태환경상** 지역 환경운동의 선구적인 역할과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기여한 개인·단체
- 시 상** 종합대상 (환경부장관상) 상장 및 상금 500만원
부문별 대상 상패 및 상금 300만원 (개인은 200만원)
서한태환경상 상패 및 상금 100만원
- 공모대상** 해당 분야에서 묵묵히 노력해온 사·도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환경단체, 공직자, 학교, 기업체 등 자격제한 없음
- 제출서류** 개인 인적사항 (법인은 연혁·등기부등본) 1부
공적조서 (추천서 양식 다운로드: www.jnilbo.com) 1부
공적 증빙 자료·사진 각 5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공적조서를 제외한 서류는 사본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접수기간** 10월 7일 (월) ~ 11월 15일 (금)
- 수상자발표** 12월 2일 (월) 전남일보 게재
- 시 상 식** 12월 10일 (화) (예정)
- 접수·문의** 우편접수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전남일보 6층 사업본부
전화 (062) 519-0730
팩스 (062) 510-0436

- 주최: **광주은행** 全南日報
- 주관: 전일엔시스
- 후원: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